(붙 임)

# 사 진 자 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도록 『조선왕실의 현판 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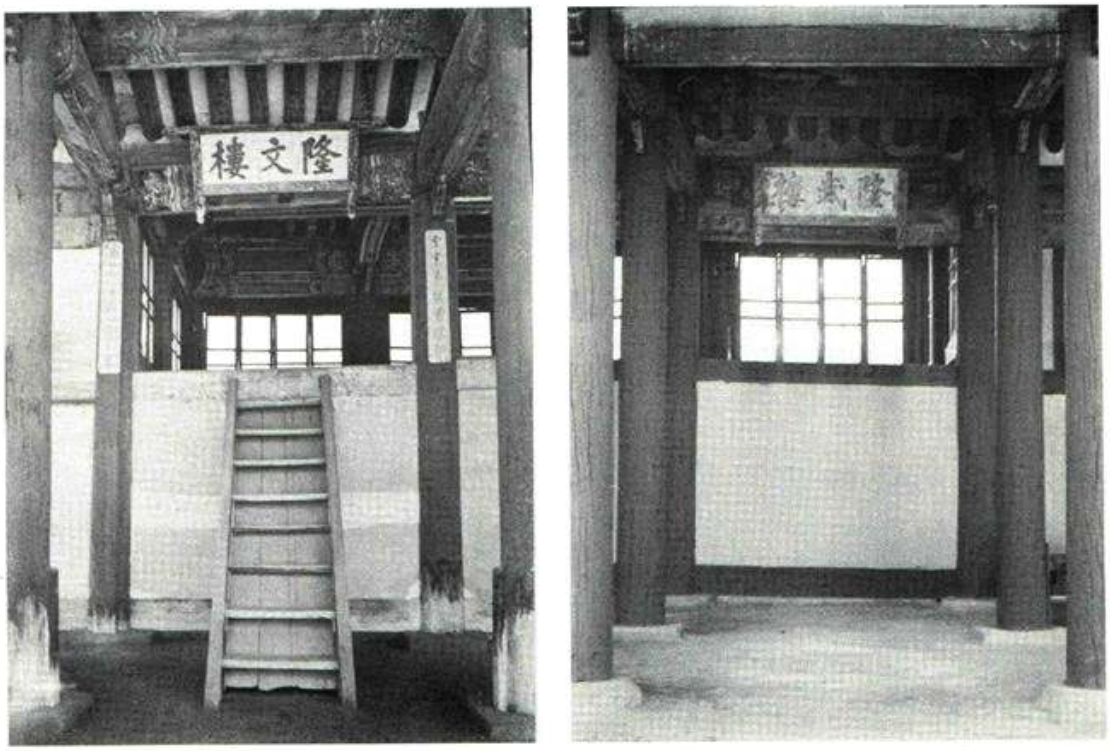
# 유 물 설 명

**[경복궁 현판]** 고종 대 행각과 담장의 문 이름을 새긴 것이 대부분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테두리가 없는 현판이 다수이다.

1. 융문루 현판(隆文樓 懸板), 김병학 글씨, 19세기 후반, 나무, 89.5×207.5cm

2. 융무루 현판(隆武樓 懸板), 신관호 글씨, 19세기 후반, 나무, 51.8×136.0cm

근정전 동행각의 융문루(隆文樓)와 서행각의 융무루(隆武樓)에 걸었던 현판이다. 두 누각은 경복궁 창건 때 처음 지어졌고 1395년(태조 4) 10월 7일 왕명을 받아 정도전(鄭道傳, 1342~1398년)이 이름을 지었다. 정도전은 “문(文)은 태평한 정치를 이룩하는 것이요, 무(武)는 난리를 평정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양팔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정치를 펼치는데[근정勤政],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문무文武를 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복궁 중건 기록인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에 따르면 1867년(고종 4) 11월 5일 흥선대원군이 두 현판의 글씨를 문·무관에게 나누어 쓰 도록 했는데, 융문루는 영의정 김병학(金炳學, 1821~1879년), 융무루는 훈련대장 신관호(申觀浩, 1810~188년)가 써서 이날 모두 걸었다고 전해진다.




융문루(좌) · 융무루(우), 1958년경(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韓國의 古宮』, 1980년, p. 43)

3. 계인문 현판(啓仁門 懸板), 19세기 후반, 나무, 31.8×80.3cm

뒷면 묵서

근정전 동행각에 있는 계인문(啓仁門)의 현판이다. 1867년(고종 4)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지어올린 당(堂)과 문(門)의 명칭을 보면 근정전 동행각 문을 계인문이라 하였는데, 현판 뒷면의 묵서 '근정전(勤政殿) 동행각(東行閣) 문(門)'과도 내용이 일치한다. '어짊을 여는 문'이라는 뜻의 계인문 세 글자를 양각하고 바탕판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칠했다. 고종 대 중건된 경복궁의 행각 및 담장에 있는 문이나 당 이름을 새긴 현판은 이와 같이 테두리 장식없이 간소하게 제작되었다.

**[창덕궁 현판]** 정조가 내린 규장각 관리들의 근무 지침, 선조의 글씨를 후대에 모각하여 후원에 걸었던 현판 등 어제어필(御製御筆) 현판이 다수이며, 화려한 문양의 테두리를 갖춘 채 전해지고 있다.

**4. 규장각 현판(奎章閣 懸板), 숙종 어필, 1694년(숙종 20), 나무, 63.5×141.7cm**

창덕궁 후원에 있는 규장각에 걸었던 숙종의 어필 현판이다. '규장(奎章)'이란 하늘의 별 중에서 문장(文章)을 담당하는 별인 규성(奎星)이 빛난다는 의미로 '규장각'은 '임금이 지은 글과 글씨를 보관하는 각'이라는 뜻이다. 1694년(숙종 20) 숙종은 종친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던 종정시(宗正寺, 경복궁 건춘문 밖 위치)에 어제어필을 봉안할 소각(小閣)을 세우고 규장각 현판을 친히 써 내렸다. 『일성록』 1783년(정조 7) 2월 25일의 기록에 의하면, 창덕궁의 규장각 현판을 종부시에 봉안해 두었던 숙종 어필 현판으로 바꾸어 걸도록[換揭] 명했음을 알 수 있다.

**5. 옹도의 시 '과남린화원(過南鄰花園)'을 새긴 현판(雍陶 過南隣花園詩 懸板), 선조 어필, 조선 시대, 나무, 68.3×142.6cm**

당나라 시인 옹도가 지은 칠언절구 시 '남린의 화원을 지나가며[過南鄰花園]'를 새겨 존덕정에 걸었던 선조의 어필 현판이다. 세월이 빨리 흘러 봄이 지나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감정을 읊었다. 또한 '갑신년 초겨울 16일 만들고[甲申孟冬旣望] 숙종 계유년(1693, 숙종 19) 여름 중보하였으며[肅廟癸酉夏重補], 당저 병오년 겨울에 중수하였다[當宁丙午冬重修]'는 내용이 음각되어 있어, 어필 현판의 중수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6. 대은원 중수 내용을 새긴 현판(戴恩院重修文幷小序 懸板), 조한경 글, 이인재 글씨, 1725년(영조 1), 나무, 56.3×159.0cm**

1725년(영조 1) 대은원(戴恩院)을 중수하게 된 내용을 새긴 현판이다. 대은원이 오래되고 비바람으로 서까래가 무너져 내리자, 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 안서(安西) 오두흥(吳斗興)이 명하여 수리하게 하였다. 창녕(昌寧) 조한경(曹漢卿)이 서문을 쓰고 연성(連城) 이인재(李仁栽)가 글씨를 썼다. 오두흥, 조한경, 이인재 모두 영조 때 내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대은원은 선정전 동남쪽에 위치한 건물로 내관들이 머물렀던 내반원 바로 남쪽에 위치하였는데, 대은원 중수를 명하고 그 내용을 글로 짓고 글씨를 쓴 사람도 내관인 것으로 보아 내시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훗날 대은원에서는 1784년(정조 8)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년)와 보양관이 상견례를 행하기도 했다.

**[창경궁 현판]** 빈전(殯殿)과 혼전(魂殿)과 관련한 국상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왕세자의 교육과 호위를 담당하는 춘방(春坊)과 계방(桂坊) 관련 현판 등이 남아 있다.

**7. 현사궁 현판(顯思宮 懸板), 순조 어제어필, 1823년(순조 23), 나무, 56.0×130.5cm**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綏嬪 朴氏, 1770~1822년)의 혼궁(魂宮)에 걸었던 현판이다. 이 현사궁 현판은 창경궁 도총부를 혼궁으로 사용했을 때 걸었던 것이다. 1823년(순조 23) 2월 순조가 직접 쓴 어필로 '생각을 떠올리면 환하게 나타나는 궁'이라는 뜻이다. 『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1822년)를 통해 현판에 소요된 재료와 제작방법, 박인수(朴寅秀)라는 화원의 이름까지 확인되는 중요한 사례이다.

**8. 양화당 현판(養和堂 懸板), 순조 어필, 19세기 전반, 나무, 148.5×296.5cm**

양화당(養和堂)은 왕이 신하들을 접견하는 편전이자 대비나 비빈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전각이다. 순조가 쓴 양화당 현판으로 '화기(和氣)를 기르는 당(堂)'이라는 뜻이다. 『창덕궁영건도감의궤』에 의하면 현판의 검은색 바탕을 칠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칠(眞漆), 금색 글자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금박(金箔)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양화당 현판의 금색 글자에 네모난 작은 금박을 붙여 만든 자국이 확인된다.

**[경희궁 현판]** 숙종과 영조가 경희궁에 머물던 시기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집경당(集慶堂), 장락전(長樂殿) 등 특정 전각의 유래와 추억이 담긴 글, 영조가 잠저시절 도총관(都摠管)으로 근무했던 도총부에 나아가 감회를 회상한 현판 등이 남아 있다.

**9. 교월여촉 현판(皎月如燭 懸板), 숙종 어필, 17세기~18세기 전반, 나무. 28.6×93.4cm**

경희궁 용비루(龍飛樓)에 걸었던 숙종의 어필 현판으로 '달이 촛불처럼 밝다'는 뜻이다. 『궁궐지』에는 경희궁 용비루에 숙종의 어제시 「용비루」와 어필 '교월여촉(皎月如燭)'이 걸려 있다는 기록이 있어 숙종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10. 서궐임서 현판(西闕臨署 懸板), 영조 어필, 18세기 중반, 나무, 33.0×72.9cm**

경희궁 홍문관에 걸었던 영조의 어필 현판이다. '서궐임서(西闕臨署)'는 '서궐에 임해 있는 관서'라는 뜻으로 경희궁의 홍문관을 말한다. 『영조실록』 1760년(영조 36) 10월 8일 기사에 영조가 경현당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서궐임서남두학사(西闕臨署南斗學士)'라는 여덟 글자를 써서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는 '서궐임서' 네 글자의 현판만 남아 있다.

**11. 도총부에서 지은 시를 새긴 현판(幸摠府{賡進詩 懸板), 영조 어제어필, 정조 예제예필 등, 1769년(영조 45), 나무, 59.5×165.0cm**

영조가 도총부에서 지은 시에 세손(훗날 정조)과 18명의 신하들이 화답한 시를 새긴 현판이다. 지난날 영조가 도총관으로 근무했던 임진년을 회상하며, 앞으로 다가올 임진년인 1772년(영조 48) 즈음 영조가 곧 팔순을 맞이함을 경축하는 시로 영조와 세손의 시는 직접 짓고 글씨를 쓴 것이며, 여러 신하들이 지은 시는 윤득성(尹得聖, 1699~?)이 쓴 글씨다.

**[덕수궁 현판]** 1904년(광무 8) 대화재 이후 궁궐을 재건하면서 고종 대 제작된 전각과 문의 이름을 새긴 것이 대부분이다.

**12. 경운궁 현판(慶運宮 懸板), 고종 어필, 1905년(광무 9), 나무, 45.0×113.0cm**

경운궁(덕수궁)의 임시 정전으로 쓰였던 즉조당(卽阼堂)에 걸었던 현판이다. 경운궁은 '경사스러운 운수가 가득한 궁'이라는 뜻으로 고종의 어필이다.

**13. 대안문 현판(大安門 懸板), 민병석 글씨, 19세기 말, 나무, 124.3×374.0cm**

덕수궁의 동쪽 문이자 정문 역할을 했던 대안문(大安門)의 현판으로 '크게 편안한 문'이라는 뜻이다. 궁궐의 남쪽에 있는 인화문이 본래 덕수궁의 정문이었으나, 1902년(광무 6)에 철거되면서 대안문이 실질적인 정문의 역할을 하였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 따르면, 1906년(광무 10) 4월에 대안문을 수리하면서 이름을 대한문(大漢門)으로 개칭하고 현판 또한 새롭게 바꾸어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대안문 현판은 이때 건물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4. 인화문 현판(仁化門 懸板), 민병석 글씨, 19세기 말, 나무, 121.7×353.5cm**

경운궁(이하 덕수궁) 남쪽에 있던 정문인 인화문(仁化門)의 현판이다. 조선시대 궁궐 정문의 이름에 '화(化)' 자(字)를 넣었던 전례를 따라 덕수궁의 정문을 '인화문'이라 하였는데, '인(仁)을 펼쳐서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에 따르면 1896년(고종 33) 11월 19일에 인화문 현판 서사관을 민병석(閔丙奭, 1858~1940년)으로 임명했다는 기사가 있어 이즈음 인화문을 세우고 현판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2년(광무 6)에 정전인 중화전(中和殿)과 중화문(中和門)을 건립하기 위해 궁궐 영역을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인화문은 철거되었고, 동쪽에 있는 대안문(大安門)이 정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화문 현판은 세로 방향의 나무판 12개를 연결하여 만든 대형 현판으로, 인화문을 촬영한 옛 사진을 보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며 네 변에 테두리를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판 서사관 민병석은 조선 말기 관료이자 서화와 행서(行書)에 능했던 인물로 인화문과 대안문 현판 등의 글씨를 썼다.

**인화문, 1902년, Foto : Louis Bauer, Family Collection Prof. Andreas Pistorius**

## <글자 제작 방식>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양각</td><td>음각</td><td>반양각</td></tr>
<tr><td>춘방에서 서연(書筵)하고 지은 시를 새긴 현판, 순종 예제예필, 1886년(고종 23)</td><td>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새긴 현판, 영조 어제, 1765년(영조 41)</td><td>연춘헌 현판, 고종 어필, 19세기 후반</td></tr>
<tr><td> </td><td> </td><td> </td></tr>
<tr><td>나무 부착</td><td>금속 부착</td><td>금박 부착</td></tr>
<tr><td>춘방에서 서연(書筵)하고 지은 시를 새긴 현판, 순종 예제예필, 1886년(고종 23)</td><td>근정전 현판, 현재 경복궁 소장</td><td>양화당 현판, 순조 어필, 19세기 전반</td></tr>
</table>